

1.

덕행과 문장과 정사를 겸비한 큰 스승, 점필재 김종직

세종 13년~성종 23년(1431~1492)

덕행(德行), 문장(文章), 정사(政事)에 있어서는
공자 문하의 뛰어난 제자로서도 겸비한 이가 없었으니,
그 밖의 사람들이야 말할 게 없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덕행에 결점이 있고,
성품이 소박한 사람은 정사에 졸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점필재 선생은 그렇지 않다.
덕행은 남의 표본이 되고 학문은 남의 스승이 되었다.
살아계실 때는 임금님께서 후하게 우대하셨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못사람들이 흠모하고 있다.

- 홍귀달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중에서

부친에게 전해 받은 도맥(道脈), 또는 다정다감한 어린 시절

점필재(佔畢齋) 선생은 강호(江湖) 김숙자(金叔滋) 선생의 3남 2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6세 때부터 부친에게 『동몽수지』·『유학자설』·『정속편』부터 『소학』·『효경』 및 사서삼경 등을 직접 배워 정몽주·길재·김숙자로 이어져내려 온 성리학의 도맥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백성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던 시인이기도 했다. 30대 초반까지의 시를 모아놓은 시집 『회당고(梅堂稿)』에는 이런 다정다감했던 점필재 선생의 젊은 시절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다. 가뭄에 고통 받는 농민의 고통을 읊은 다음의 시도 그 가운데 하나다.

覆塊新苗漸欲岐	흙을 갈아 새로 심은 새싹 싹 틔우려하는데,
提鋤愁見拆田龜	호미 들고 짹짹 갈라진 밭 바닥 바라보네.
挽槽運水旋滲漏	물길 당겨 물 대어도 금세 스며들어 버리니,
誰解渠農筋力疲	누라서 그네들의 고달픔을 헤아려줄거나.

- 〈사월의 가뭄[四月旱]〉

극심한 가뭄으로 논밭이 짹짹 갈라진 봄날의 한 풍경이다. 선생은 힘겨운 농부들의 고달픔을 흘려 보지 않았다. 뒷날 점필재 선생은 함양군수와 선산부사와 같은 목민관으로 있으면서 탁월한 선정(善政)을 펼친 것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런 자질을 이렇듯 고향 밀양에서 어린 시절부터 닦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시재(詩才)에 대한 자부와 낙방의 아픔

점필재 선생은 16세 되던 세종 28년, 소과(小科)에 응시했으나 낙방의 쓴맛을 보았다. 하지만 그때 지은 <백룡부(白龍賦)>라는 시를 본 김수온(金守溫)은, 뒷날 문형(文衡)을 잡을 만한 솜씨라며 극찬을 하였다. 그럼에도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오다가 느낌이 들어 시를 지어 한강의 체천정(濟川亭)에 걸어두었는데, 그 시는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었다.

雪裏寒梅雨後山	눈 속의 찬 매화와 비온 뒤의 산 경치
看時容易畫時難	보는 쉬워도 그림으로 그려내긴 어려워라.
早知不入時人眼	사람들 눈에 들지 못할 줄 알았더라면
寧把臙脂寫牡丹	차라리 연지를 가지고 모란이나 그릴 것을.

- <연보>, 세종 28년(1446, 16세) 기사 중에서

과거에 낙방한 울울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은 눈 속에 핀 매화의 고고함과 비갠 뒤 산의 깨끗함을 읊었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눈길을 주고 좋아하는 시란 모란처럼 걸만 번드르르한 것일 뿐이다. 고결한 뜻을 읽지 못하는 세속사람들의 천박함에 대한 통렬한 꾸짖음이다. 실제로 점필재 선생의 시는 화려함이 아니라 호방하면서도 활달한 것으로 정평을 얻었다. 글귀만 아름답게 다듬는 시풍과 거리가 멀다. 기교와 수사만이 넘치던 그 당시, 점필재 선생이 새로운 문풍을 주도한 시인으로 기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친의 죽음과 지극한 효성, 그리고 <조의제문>의 창작

점필재 선생은 26세 되던 세조 2년(1456) 3월, 부친의 상을 당했다. 선생은 두 형과 함께 3년간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지극한 효성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동할 정도였다. 그때 그곳에서 여묘살이를 하며 자기 집안의 가계, 부친의 연보, 사우관계, 공업, 제사의 절차 등을 정리한 『이준록(彝尊錄)』을 편찬하였다. 점필재 선생의 삼형제가 부친의 묘 아래에서 삼년간 여묘살이를 하여 고을사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소학』과 『가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가면서 성리학적 이념을 주변에 확산시켜가던 정황을 보여주는 면모임에 분명하다. 선생은 부친을 잃은 아픔을 이렇게 슬피 흐느꼈다고 한다.

“푸른 하늘이여, 푸른 하늘이여,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선조(先祖)여, 선조여,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술잔 잡아 축복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니, 이것이 바로 선공께서 영결(永訣)하신 말씀이었구나. 생각해보니, 그 당시의 눈물은 또한 하늘이 내 마음을 유인하여 아버님의 곁을 떠나지 말도록 했던 것인데, 이록(利祿)에 얽매임을 면치 못하여 끝내 아버님의 곁을 떠나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극악(極惡)하고 극역(極逆)한 죄를 누구에게 책임지우겠는가. 악독하고 악독하도다. 인간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 혼자만 살아남는단 말인가.”

- <연보>, 세조 2년(1456, 선생 26세) 기사 중에서

사실, 강호 김숙자 선생은 점필재 선생의 부친이기 이전에 스승이기도 했다. 선생이 17세 되던 해, 땀이 등에 흠뻑 젖을 정도로 부친의 엄한 꾸지람을 들은 뒤부터 성리학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꿈 많던 젊은 청년이 문장과 도학을 아우르면서 조선의 인문정신을 열어가는 첫걸음을 비로소 내딛게 되었던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점필재 선생이 여묘살이를 하던 27세 되던 세조 3년(1457), 강원도 영월 청령포(淸泠浦)에 유배가 있던 단종이 마침내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때, 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楚) 의제(義帝)의 일에 빗댄 글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의 불의를 풍자했다. 뒷날, 유자광 등은 이 글을 빌미로 삼아 무오사화(1498)를 일으키고 선생은 부관참시를 당하게 된다. <조의제문>의 서문은 이러하다.

정축년(세조 3년) 10월 어느 날, 내가 밀양에서 경산(京山)으로 가던 길에 답계역에서 자게 되었다. 그날 밤, 어떤 신인이 일곱 가지 문채가 있는 제왕의 의복을 입고 흰칠한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회왕(懷王)의 손자로 이름은 심(心)이라고 하는데, 서초패왕 항우에게 시해되어 침강에 던져진 사람이다.”하고는 이내 사라졌다. 나는 잠을 깨어 생각해 보았다. 회왕은 남방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동쪽 나라 사람이다. 땅이 만 리가 넘게 떨어져 있고, 시대도 천년이나 뒤져 있는데 꿈속에 나와 감응하게 되니, 이것은 무슨 조짐일까? 또한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는 말은 없는데, 혹시 항우가 사람을 시켜 몰래 죽여 그 시체를 강물에 던진 것일까? 마침내 글을 지어 의제의 혼령을 위로한다.

- <조의제문> 서문에서

과거급제와 서울에서의 관직생활

점필재 선생은 29세가 되던 세조 5년(1459) 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승문원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10년 정도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였다. 물론 33세 때인 세조 9년, 사헌부 감찰로 있을 때 유자(儒者)에게 잡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의 부당함을 간언하다 파직되어 잠시 고향 밀양에서 보내기도 했고 영남병마평사가 되어 몇 년간 외직에 나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주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사랑과 믿음을 듬뿍 받았다.

天顏不違尺	임금님 용안을 지척에서 모시는지라
密勿龍光錫	친근하게 용광의 술잔을 내리시었네.
飽德歌鳧鷖	덕을 흠뻑 입고 시경의 <부예편>을 노래하는데
何煩協金石	무어 번거롭게 악곡 맞출 것 있나.

<임금님께서 칠월에 연해서 삼일 동안이나 승정원에 술을 내리셨다. 그 이튿날에는 또 시와 술을 내리셨는데, 그 시에 “삼일 동안 음주가 이미 괴롭겠지만, 내가 준 것을 사양하지 말라. 이 뜻은 다른 마음에서가 아니라, 종사를 길이 반석처럼 보존키 위함이로다.”라고 하여, 그 좌석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화답하여 올리었고, 나는 이 때 비각(秘閣)에 있었으므로, 두 수를 지어 화답하였다.> 라는 긴 제목의 시이다.

선정으로 이름 높던 함양군수 시절,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

점필재 선생은 성종 원년(1470), 늙은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했다. 임금은 함양군수를 제수하여 모친을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선생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은 물론 학문을 진작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민관으로서의 급선무로 삼았다. 나각(羅閣)을 기와로 바꾸고 차밭을 일구어 함양군민의 고된 부역을 덜어준다거나 정여창·김굉필과 같은 인근의 뛰어난 제자를 처음 만나 가르쳤던 것도 이때였다.

窮荒何幸遇斯人 궁벽한 데서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던고
 珠貝携來爛熳陳 보배 싸들고 와서 찬란하게 펼쳐 놓았네.
 好去更尋韓吏部 돌아가서 한유 같은 사람 찾아보게나
 愧余衰朽未傾困 나는 늙어서 곳집 기울이지 못함 부끄럽다네.

- <수재 김굉필과 곽승화에게 답하다(答金郭二秀才 宏弼承華)>

선생이 함양군수로 있던 44세 되던 해 봄, 김굉필과 곽승화가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을 때 지어준 시이다. 선생은 이들이 문장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을 깊이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소학』을 건네주며 도학 공부에 힘쓸 것을 권했다. 이후 김굉필은 '소학동자'라 일컬어지게 되었고, 그 가르침은 조광조에게 이어졌다. 조선에 도학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물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점필재 선생이다.

하지만 점필재 선생의 함양군수 시절은 무척 가슴 아픈 시절이기도 했다. 44세 되던 1474년(성종 5년) 봄, 막내아들 목아(木兒)가 다섯 살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죽었다. 뿐만 아니다. 그해 여름에는 딸이 죽고, 가을에는 맏아들마저 죽고 말았다. 한 해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잃었던 것이다. 선생은 매우 큰 슬픔에 빠졌다. 마침내 시름을 견디기 어려워 사직서를 올리고, 금산(金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 경상감사로 있던 강희맹(姜希孟)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는 직무를 수행하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여 하는 수 없이 다시 함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은 쉬 가시지 않았다.

忽辭恩愛去何忙	홀연 애비 곁을 떠나 어찌 그리 바빠 가느냐
五歲生涯石火光	다섯 살 생애가 전광석화처럼 빠르구나.
慈母喚孫妻喚子	할머니는 손자를 부르고, 어머니는 자식을 부르니
此時天地極茫茫	때야말로 천지는 망망하기 그지없어라.

- 〈아들 목아를 애도하며(悼木兒)〉

다섯 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버린 참혹한 시신을 앞에 두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통곡하던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그를 지켜보던 선생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실제로 선생은 그때 삶의 의미를 거의 상실한 듯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휴가를 내보기도 하지만 슬픔을 견딜 수 없어 함양군수를 사직한 뒤, 금산으로 돌아갈 정도였다. 아마도 선생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4년간의 함양군수 시절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선산부사 시절, 풍속 교화와 제자 교육

점필재 선생은 함양군수를 마치고 칠 무렵, 정사(政事) 성적이 으뜸이었다. 그리하여 승문원사(承文院事)에 임명되어 서울로 올라갔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모시기를 청했다. 이번에는 선산부사에 제수되었다. 그곳에서도 풍속 교화는 물론 김굉필·이승언·원개·이철균·곽승화와 같은 젊은 제자들과 옛 글을 강론하였다.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려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기도 했다.

博帶褒衣正匹儕	선비의 옷차림을 한 그대들 서로 벗을 이루어
瓊音喜聽月波西	월과정 서쪽에 찾아오던 발자국 소리 반가웠지.
...(중략)...	
自多吾黨多奇士	우리의 무리 가운데 기특한 선비 많으니
洗眼行看淡墨題	눈을 씻고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보아야겠네.

함께 공부한 제자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뜻이 간절하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 당[吾黨]’이란 구절이다. 그들은 단순한 사제(師弟)가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동지(同志)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영남선배당(嶺南先輩黨)’이라 일컫기도 했다. 그건 선생과 제자들의 끈끈한 정을 혈뜻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지만,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의 부러움이기도 했다.

모친의 죽음, 그럼에도 멈추지 않던 제자 교육

점필재 선생이 49세 되던 성종 10년(1474),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향년 80세였다. 선생은 부친 때와 마찬가지로 여막(廬幕)을 짓고 예를 다하자 모든 사람들이 지극한 효성에 모두 감동했다. 선생은 평소에도 효성이 깊은 것으로 소문이 났었다. 화려한 서울에서의 관직생활을 마다하고 먼 외지의 함양과 선산으로 지방관을 자청했던 것도 모두 모친을 보다 가까이에서 모시기 위해서였다. 선생은 행장(行狀)을 지어 어머니의 만년생활을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께서는 만년에 시골에 살면서 친척 중에 나이 많은 여러 부인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맛있는 음식 한 가지만 있으면 반드시 나누어 먹고, 조그마한 잔치라도 반드시 초대했다. 그리고 미천한 사람들이 문안드리고 물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비록 채소나 과일 따위일지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되, 오는 것은 간략하게 받고 보내는 것은 많이 주어 돌려보냈다.

- <돌아가신 어머니 행장(先妣朴令人行狀)> 중에서

선생이 고향에서 여묘살이 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서울에서는 홍유손이 양준·양개[양침] 형제를 함께 데리고 천리 길을 걸어와 배움을 청하고, 초계의 안우, 청도의 김기손·김일손 형제도 찾아와서 배움을 청했다. 선생은 그들을 기꺼이 제자로 받아 가르쳤다.

부인 조씨의 죽음, 아내를 그리워하는 애절함

점필재 선생이 52세 되던 성종 13년(1482), 모친의 상을 마쳤다. 세상에 나갈 뜻이 없어 금산(金山)에 경렴당(景濂堂)을 짓고, 서당 옆에 못을 파서 연(蓮)을 심고 지냈다. 주렴계의 삶을 깊이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해 3월 11일 홍문관응교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에 제수되었다. 선생은 병을 이유로 간곡히 사직을 청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그 뒤 보름만인 4월 30일 부인 조씨(曹氏)가 작고하였다. 어렵게 휴가를 얻어 11월 20일 조씨 부인을 금산의 미곡(米谷)에 장사지냈다. 그리고 부인을 그리는 절절한 뜻을 담은 제문(祭文) <죽은 처를 제사 지내는 글(祭亡妻淑人文)>을 지어 영전에 바쳤다.

...(전략)...

方謀休官，採山釣水	벼슬살이 그만두고 나물 캐고 낚시질 하며
白首相依，以保餘齒	늘그막에 서로 의지하며 여생 보내려했는데
茲計幾就，胡遽至此	계획 거의 이뤘는데 어찌 이 지경 이르렀나.
嗚呼哀哉	아, 슬프도다.

君之生世，艱厄重仍	그대 태어난 이후 간난과 액운이 겹치어서
年未周星，母疾不興	십여 세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중략)...

及歸于我，休咎輒徵	시집온 이후로는 길흉화복이 덧없이 이르러
歡不滿眼，得禍尤弘	즐거움은 눈에 차지를 앓고 재앙은 더욱 커
兩更三年，黽勉嘗蒸	두 차례 삼년상 치를 적에 범절을 다하였네.
我蔑聞道，百鬼侵陵	나는 도를 깨치지 못해 온갖 귀신이 침범하여
二女五男，相踵魂升	딸 둘과 아들 다섯이 잇따라 죽어가니

君以摧裂, 夙瘳轉增 嗚呼哀哉	그대 이로 인해 가슴 찢겨 목은 병 더치었네. 아, 슬프도다.
昔君得疾, 實因解挽 風邪血毒, 于中旋轉 十載服藥, 積聚銷翦 往往復患, 厥證亦淺 久而當已, 庶幾平善 遂致因循, 治療不勉 竟以此終, 令我慚靦 嗚呼哀哉	전에 그대가 병을 얻은 것은 해산에서인데 풍사와 어혈의 독이 몸 안에 항상 돌고 돌아 십 년 동안 약 먹은 끝에 뭉친 것 제거되고 이따금 아프기는 하나 증세 또한 가벼웠기에 오래 가면 의당 나아지리라 여겼었네. 마침내 버려두고 치료를 힘쓰지 않았더니 끝내 세상을 마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려. 아, 슬프도다.
...(후략)...	

- <죽은 처를 제사지내는 글(祭亡妻淑人文)> 중에서

명문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힘겨웠던 어린 시절, 세상일에
오활한 자신에게 시집와서 온갖 고생을 해야만 했던 아내, 아
들 다섯과 딸 둘을 모두 앞세워 보내야했던 참으로 불행했던
어머니, 산후 조리를 제대로 못해 병을 얻어 오랫동안 자주 병
치레를 하다가 죽은 한 여인이 바로 선생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런 가여운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미안한
마음이 절절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근엄한 점필재 선생의 또
다른 모습, 곧 자상한 가장으로서의 내면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한한 감동과 함께 눈시울
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가족사의 시련 뒤, 혁혁한 사대부로서의 삶

점필재 선생은 53세 되던 성종 14년(1483) 승정원동부승지에 제수된 뒤, 우부승지·도승지 등으로 계속 승진하였다. 그때마다 선생은 병으로 사양하였지만, 임금은 “경의 문장(文章)과 정사(政事)로 보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 사양하지 말라.”며 끝내 윤택하지 않았다. 54세 때는 마침내 이조참판에 제수되었는데, 용렬한 관리들을 도태시키고 어진 선비들을 많이 천거·등용시키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그 뒤 예문관제학에 제수되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수찬(修撰)하였는가 하면, 『동국통감(東國通鑑)』 편찬하는 데에도 깊숙하게 관련을 맺었다. 그 즈음 역대 한시를 새로운 안목으로 선별하여 엮은 『청구풍아(靑丘風雅)』를 편찬하기도 하고 역대 산문의 정수를 뽑아 『동문수(東文粹)』를 편찬하기도 했다. 이런 작업은 서거정이 편찬한 방대한 선집인 『동문선(東文選)』과 대비되는 작업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인문지리, 역사, 문학 등 여러 방면에서 훈구파 관료들이 활개를 치던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조선의 새로운 문명을 기획·편찬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라감사·한성부좌윤·공조참판 등을 거쳐 마침내 59세 때 정이품의 형조판서에 올랐다. 자식을 모두 잃는 아픔, 그리고 연이은 모친상과 부인상의 시련을 겪고 난 50대 중·후반이 선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혁혁했던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성종은 선생을 이렇게 칭찬하였다.

경은 품성이 단정하면서도 온화하고, 처신은 간결하면서도 진중하오. 학문은 천도와 인사를 꿰뚫었고, 식견은 고급의 이치와 적의함에 통달하였소. 도덕으로 몸을 조심하니 찬란함이 구름 사이의 봉황과 같고, 문장으로 세상을 상서롭게 하니 하늘 위의 기린과 같도다. 일찍이 태산북두와 같은 명망을 얻었고, 늦게 기회를 얻어 승정원에 진출해서 왕명의 출납을 성실하게 하였고, 이조에 발탁되어서는 인사권을 공정하게 사용하였고, 형조에서는 맑은 거울 같이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였고, 성균관에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기풍을 크게 일으켰소.

-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 2월조.

선생의 품성, 처신, 학문, 식견, 도덕, 문장 등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기리고 있는 성종의 말에는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숨김없이 담겨 있다. 실제로 성종은 뛰어난 선비를 무척이나 아끼고 이끌어주었던 임금이었다. 그리고 그런 선비 가운데 선생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하지만 선생은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2년 뒤 성종도 승하하였다. 어진 임금과 바른 신하의 아름다운 만남은 그렇게 끝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 성종을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올곧은 선비들을 무자비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도 폭정을 일삼다가 끝내는 폐위되고 말았다. 역사의 교훈이 성성하게 드러나는 한 대목이다.

어린 신부와 만년에 늦둥이 아들을 얻은 기쁨

점필재 선생은 부인 조씨를 잃고 혼자 지내다가, 이조참판으로 있던 성종 16년(1485), 문극정(文克貞)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그때 부인의 나이 18세였으니, 선생보다 무려 37살이나 어렸다. 부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법도 있게 다스렸고, 집안도 화목하게 만들어 나갔다. 게다가 선생이 56세 되던 7월 22일, 늦둥이 아들 승년(嵩年)을 낳았다. 선생은 시를 지어 만년에 자식 얻은 기쁨을 노래했다.

眼有昏花牙齒無	눈은 침침하여 어른거리고 치아도 없지만
猶誇造物不嫌吾	조물주가 나를 꺼리지 않았는가 보네.
少於白傅纔三歲	백거이보다 겨우 세 살이 적은 나이에
賽却徐卿已二雛	서경의 두 아이보다 훌륭한 아이 얻었으니.
繼序唯論母貴賤	대를 잇는 데는 어미의 귀천을 논할 뿐이요
揚名正係子賢愚	명성 떨치는 것은 자식의 현우에 달렸다고.
他年反哺將誰責	후일에 효도하기를 누가 책임지우랴,
且弄明珠獨自娛	밝은 구슬 희롱하며 혼자 즐길 뿐이네.

- <7월 22일, 아이 얻은 기쁨을 적다(七月二十二日志喜)>

점필재 선생은 아들이 겨우 7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뒤에, 무오사화의 참변을 목도한 아들은 명리(名利)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홀로된 모친을 효성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밀양으로 낙향, 덕행과 문장과 정사에 뛰어났던 삶

점필재 선생은 59세 되던 성종 20년(1489), 깊은 병이 들어 관직을 사직하고 요양을 했지만 차도가 없자 마침내 고향 밀양으로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원근에서 찾아오는 젊은 제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성리학의 본뜻에 합치하도록 가르치는 한편 자기 스스로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이처럼 도학(道學) 밝히는 것을 사업으로 삼던 중 병은 더욱 위중해졌다. 임금이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역말로 달려가서 치료하도록 하였으나 끝내 명발와(明發窩)에서 작고하니, 향년 62세였다. 부음을 전해들은 임금은 이틀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밀양 남쪽 무량원(無量院)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절친한 지우이기도 했던 홍귀달은 선생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다.

덕행(德行), 문장(文章), 정사(政事)에 있어서는 공자 문하의 뛰어난 제자로서도 견비한 이가 없었으니, 그 밖의 사람들이야 말할 게 없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덕행에 결점이 있고, 성품이 소박한 사람은 정사에 졸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점필재 선생은 그렇지 않다. 덕행은 남의 표본이 되고, 학문은 남의 스승이 되었으며, 살아계실 때는 임금님께서 후하게 우대하셨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못사람들이 흠모하고 있다.

- 홍귀달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중에서

홍귀달은 선생을 덕행과 문장과 정사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했다. 한 인간이 이처럼 여러 방면에 돋보이기란 힘든 일이다. 올곧은 삶을 몸소 보여주고, 활달한 문장의 시대를 열고, 훈구와 세력이 틀어쥐고 있던 정치 국면을 새롭게 일신했던 공업. 우리가 선생을 조선의 인문정신을 열어간 인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런 면모 때문이고, 그토록 많은 젊은 지성이 선생을 사모했던 것도 이런 면모 때문일 터다. 한 인간의 아름다운 향기는 참으로 멀고도 오래토록 여향(餘香)을 끼치는 법이다. 실제로 제자 이원(李蘊)이 문충공(文忠公)이란 시호를 청하며 선생의 삶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온화하고 선량하고 인자하고 은애롭다. 그리고 일찍부터 부친께 학문을 배워 몸소 사도(師道)를 담당하였다. 덕(德)과 인(仁)에 의거하여 충신(忠信)과 독경(篤敬)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아서, 사문(斯文)을 진흥시키는 일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았다. 그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왕도(王道)를 귀히 여기고 패도를 천히 여겼으며, 직사(職事)에 임해서는 지극히 간편하게 하여 번거로운 일을 제어하였으며,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글을 널리 배우게 하고 예(禮)로써 단속하게 하였다. 아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효성을 극진히 하였고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정성을 극진히 하였으며, 남의 착한 일을 숨기지 않았고 남의 악한 일을 들추어내지 않았으며, 청결하면서도 편협하지 않았고 유화하면서 세속에 뇌동하지 않았다. 문장(文章)과 도덕(道徳)이 세상에 우뚝 뛰어나 참으로 삼대의 남긴 인재로서 그 사문에 공을 끼친 것이 중대하다. 시법(諡法)에 도덕박문(道徳博文)을 문(文)이라 하고, 염방공정(廉方公正)을 충(忠)이라 한다.

무오사화의 비극, 그리고 뒷날의 복권

제자 이원은 자애로운 성품, 후진 교육의 열의, 바른 관료로서의 표본, 지극한 효성과 충성, 탁월한 문장과 도덕 등으로 선생의 삶을 요약하면서 문충공(文忠公)이란 시호를 내려줄 것을 임금께 올렸다. 하지만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훈구대신들은 선생의 사후까지 시기하고 헐뜯었다. 성종은 하는 수 없이 시호를 문간공(文簡公)으로 고쳐 내려야했고, 뒷날 연산군은 문충공이란 시호를 올렸다는 이유로 이원을 유배 보내기까지 했다. 아니, 점필재 선생에게는 부관참시라는 참혹한 악형까지 가했다. 뒤틀린 정국의 한 단면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법이다. 중종반정 이후 무오사화 때 무고하게 화를 입은 점필재 선생은 복권이 되었다. 퇴계 이황은 선생의 삶을 이렇게 평한 바 있다.

佔畢師門百世名 점필재 사문, 백세토록 이름이 났는데
 沿文溯道得鴻生 문을 따라 도를 구하여 훌륭한 제자를 얻었도다.
 成功未半嗟蒙難 공업(功業)을 이루기 전에 화란(禍亂) 입어
 喚起群昏尙未醒 몽매한 사람 깨우려했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네.

- 〈한거(閑居) 14수〉 중에서

퇴계 이황은 선생을 백세(百世)의 스승으로 지극히 존봉(尊奉)하면서, 살아생전에 힘썼던 후진 양성과 계몽 사업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큰 좌절을 겪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실제로 점필재 선생의 많은 문인들은 두 차례의 사화로 거의 모두 처

형당하는 변을 당했었다.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이 선생을 “문(文)을 통해서 도(道)를 추구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생은 임금 성종, 친구 홍귀달, 제자 이원이 거듭 강조한 바 있듯 ‘문장’과 ‘도덕’을 겸비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그걸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꿔 말한다면, 점필재 선생은 올곧은 정신세계를 풍부한 감성의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았던 인문정신의 우뚝한 전범이었다고 하겠다. 우리가 지금도 점필재 선생의 자취를 길이 본받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그런 점필재 선생은 숙종 15년(1689)에 예조판서 남용익(南龍翼)의 주청에 의해 영의정에 추증되고, 숙종 34년(1709) 예조판서 조상우(趙相愚)의 주청으로 문간공(文簡公)에서 문충공(文忠公)으로 시호를 되돌려 받았다. 연산조의 무오사화(1498) 때 관직삭탈은 물론 부관참시라는 형언키 어려운 참화를 겪었던 선생의 삶은 뒤늦게나마 온전하게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명종 22년(1567) 밀양지역 유림들은 점필재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중동면 자시산(慈是山) 아래에 덕성서원(德城書院)을 세워 선생의 위패를 처음 모셨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복원하고, 인조 12년(1634)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면서 이름을 예림서원으로 바꾸었다. 밀양지역의 선현인 오졸재(迂拙齋) 박한주(朴漢柱) 선생과 송당(松堂) 신계성(申季誠) 선생을 추가 배향(配享)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